

선택적 갑상피열근 마비: 임상적인 특징과 감별진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이상엽, 김성동, 김예원, 김보해, 진영주, 정은재, 권택균*

Background

기도삽관은 전신마취를 위하여 거의 모든 환자에게서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술식이다. 기도 삽관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인두통, 애성 및 연하장애가 가장 흔하고 대부분 증상이 경미하고 발관 후 수일 내에 호전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발관 후 수일 내에 호전 되지 않는 애성의 경우 감별진단이 필요한데 성대마비, 피열연골아탈구(arytenoid subluxation), 후성문손상(posterior glottic injury) 등이 포함된다. 저자는 갑상피열근의 선택적인 마비 환자의 임상양상을 수집하여 보고함으로써 기도삽관을 통한 전신마취 후 발생하는 성대마비의 기전을 설명하고 감별진단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Methods

모두 7명의 선택적 갑상피열근 마비 의심환자의 병력, stroboscopy, 후두근전도 및 임상 추적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Results

7명 모두 성대신경과 해부학적으로 관계 없는 부위의 수술을 받은 환자로 수술 후 시행한 stroboscopy 상 성대의 외전은 정상적이었으나 일측 혹은 양측 성대의 내전이 제한되어 있고 동시에 성대 장력이 감소된 소견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이중 두명의 환자에서 시행한 후두근전도로 탈신경의 증거를 확인하였다.

Conclusion

본 연구를 통해 기도삽관을 통한 전신마취 후 선택적으로 성대신경의 분지에 국한된 마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는 기도삽관 외에 다른 위험인자 없이 발생한 성대마비의 기전으로서 기도삽관 cuff의 압력으로 인한 성대신경의 압박이 중요한 원인임을 추정하였다.

Keywords

Intubation, Vocal fold paralysis, Dysphonia